



자유와 책임

정병모/자유기고가

우리는 '자유를 주지 않으려면, 죽음을 달라'면서 얼마나 피땀히도록 절규해 왔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회복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해 왔는가.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절규와 희생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언행(言行)인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

자유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자기의 언동에 대해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회인으로서의 양식(良識)에 따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주위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 규칙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존중함으로써 삶의 질(質)을 높이고, 보람의 삶을 누리자는 데 뜻이 있다.

스포츠에 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선수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량을 연마하여 게임에 전념케 함으로써 스포츠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이다.

자유주의 사회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특정 개인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언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마음대로 발언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바른 의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 나의 자유는 곧 다른 사람의 자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책임이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 준수성이다. 관습이나 규칙·약속 그리고 법 등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이다. 지킨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성실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뜻이다.

둘째, 완수성이다. 우리는 약속 등 해야 할 일을 늦추는 경우가 많다. 지연되면 상대에게 폐를 끼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

셋째, 양심적으로 행동한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기대 이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벼운 행동이라 하더라도 플랜·두·시의 과정을 거치는 지혜를 쌓아야 한다.

넷째,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타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 얼마나 짜증스럽겠는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란, 상황변화에 대응하면서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말을 쉽게 그리고 많이 하면서도 그 참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자유와 책임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할 때,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도 구축될 것이다.

